

‘우리말 불교개념 사전’ 나온다

동국대 100주년 사업 일환, 불교학자 110명 참여 120여 주요개념 어원·사용례 등 포괄적 설명에 초점

내년 상반기 간행 목표

주요 불교개념의 뜻풀이는 물론, 텍스트상의 용례, 그리고 관련된 현대적 논의의 흐름까지 짚어주는 새로운 개념의 사전 <우리말불교개념사전>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이 사전은 단편적인 뜻풀이 위주의 대다수 사전들과는 달리 불교의 주요 개념 120여개를 어원·사용례는 물론 의미의 역사적 변천 및 인접개념과의 관계, 출전 근거까지 일일이 밝혀내는 내용으로 편찬될 예정이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말불교개념사전>은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2003년 준비 작업에 착수해 2004년부터 편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된 편찬위원회(위원장 서운길)가 사전 편찬 작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110여명의 국내 불교학자가 집필자

로 참여하고 있다. 110여명이면 국내 불교학자들 거의 망라한 수준으로, 불교학계의 지적 역량을 총집결한 불사라 할 만하다.

편찬위는 먼저 불교의 주요 영역을 ‘인간관’ ‘세계관’ ‘수행론’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주요 개념을 뽑아냈다. ‘인간관’에 붓다·아라한·보살 등 20여개 개념, ‘세계관’에 일체·무상·연기 등 50여개의 개념, ‘수행론’에는 간화·제율·깨달음 등 50여개의 개념이 포함됐다.

이렇게 선정된 개념들은 집필자의 박사 논문 주제 또는 주된 연구 분야와의 관련성을 감안해서 할당됐다. 집필자와 주제어를 살펴보면, 동국대 서운길 교수(고려시대 밀교 연구)가 ‘즉신성불(即身成佛)’, 조용길 교수(초기불교의 업사상 연구)가 ‘업(業)’을 주제로 집필했으며, 충남대 이평래 교수(여래장사상연구)는 ‘진여(眞如)’, 전남대 이종표 교수(아함의 중도체계 연구)는 ‘오온’을, 경남대 최유진 교수(원효의 화쟁사상)는 ‘화쟁’을 집필하는

등 집필자의 전문성이 잘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주제가 풀이는 △어원적 근거 및 뜻풀이 △역사적 용례 및 텍스트별 사용 예 △인접개념과의 관계 및 현대적 논의 △출전 근거와 참고문헌 등의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하나의 개념을 시대별로 살피는 한편, 관련 개념과의 관계까지도 설명해나보니 집필 분량이 방대해졌다. 편찬위는 집필 분량을 주제어당 200자 원고지 150~200매로 책정했다. 한편의 논문을 방불케 하는 분량이다. 이렇게 집필된 사전은 1200쪽짜리 책 5권과 색인 1권으로 편찬될 예정이다.

편찬위원장 서운길 교수는 “<우리말불교개념사전>은 동국대 100주년 기념 학술 분야 사업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이 사전을 통해서 불교 개념의 본래 의미와 변형된 의미,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의 현대적 의의까지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전 내용 미리 엿보기

3월 17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열린 한국선학회(회장 현라)에서 경북대 임승택 교수가 발표한 논문 ‘사념처’는 <우리말불교개념사전> 구체적인 주제어 풀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 사전 편찬 지침에 따라 집필된 원고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불교 실천체계의 핵심인 사념처(四念處)에 대해 임 교수는 먼저 사념처를 한문·산스크리트어·티베트어·영어로 표기한 뒤 경전에 근거해 정의하고, 개념적

으로 분석했다. 이어 인접개념으로 ‘지속적인 관찰’ ‘위빠사나’ ‘알아차림’ ‘마음지킴’ ‘사마타’ 등과 비교해 차이점을 드러냈다.

또 초기불교의 <대념처경> <염처경> <입출식념경> 등과 아비달마 문헌인 <대비바사론> <아비달마구사론> 대승불교의 <유가사지론> <마하지카관> 등에서 개념이 사용되는 맥락을 살펴며 개념의 역사적인 의미 변천을 밝혀냈다.

가장 돋보인 부분은 현대적 해석과 논의를 다룬 부분. 이와 관련된 임 교수는 ‘현대적

적용과 실천’ ‘현대적 논의’로 항목을 구분했다. ‘현대적 적용과 실천’ 부분에서는 마하시(1904~1982), 고엔카(1924~), 붓다다사(1906~1993) 등 오늘날 남방 상좌부 수행자들의 실천 방법과 특징을 소개했다.

또 ‘현대적 논의’에서는 사념처의 위빠사나가 선정(禪定), 즉 사마타 상태와 어떤 관련을 맺는가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국내외 학자들의 설을 소개했다. 논문 말미에는 집필자가 참고한 원전 및 번역본, 논문 및 단행본 등을 밝혀놓았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문화재 보존 자연활용이 최고 과학”

이태녕 박사 연구과정 밝혀 ‘고미술의 과학’ 릴레이 강좌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에 ‘숨어 있는’ 과학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한 과학계 석학들의 릴레이 강좌 ‘고미술의 과학’이 3월 17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강당에서 이태녕 서울대 명예 교수(화학·사진)의 강연으로 막이 올랐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특강에는 전국에서 150여명의 수강생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다. 그 열기에 부응하듯 팔순을 넘긴, 문화재보존학계의 태두인 박사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열띤 강의로 수강생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박사의 강연 주제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제습(除濕)의 지혜와 문화재 보존문제’. 이 박사는 공주 송산리 6호 고분과 석굴암,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전에 녹아 있는, 조상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지혜를 하나씩 풀어놓았다.

이 박사는 화학도로서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된 인연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1956년 방문한 송산리 6호 고분. 지하구조물이고 다습한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을 포함한 벽, 천정의 벽돌 표면 전체가 완전한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놀라고 말았다. 순간 발견한 것이 연도 중앙부를 통해 뚫려 있는 배수로였는데, 건조한 벽면과 달리 벽돌로 만들어진 배수로 는 젖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벽면의 벽돌이 겹겹으로 쌓여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해 보온 효과를 내 온도가 높은 반면, 바닥에 접해있던 배수로 표면은 낮은 온

두개의 샘이 자연제습 메카니즘 경관 ‘틈새상자’로 습도 조절

도를 유지해 냉각판 구실을 함으로써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습도를 조절하는 메카니즘을 발견한 것이다. 이 일은 이 박사를 문화재보존과학의 길로 이끌었다.

이 박사는 석굴암에서도 자연제습 메카니즘을 발견했다. 그는 석굴암 밑에 있는 두 개의 샘이 석굴암 바닥을 흐르면서 결로를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문화재를 보존하는 지혜에 대한 이 박사의 관심은 고려대장경 판전으로 이어졌다. 그는 경관을 온전하게 보존해온 판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1991년 센서를 직접 제작해 수다라장과 법보전의 내부 여러 곳에 설치하고 미시기상환경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판전 내부 온도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2~3도 높은 수치 분포를 보이

나. 수평분포는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났다. 내부 습도는 옥외에 비해 변화가 완만하며 공간 내에서 거의 동일했고, 판가 위 경관 사이의 온도변화는 공간에서 보다 느리고 작았다. 이로 인해 목재품질 열화 원인인 수분 응축이 줄어 경관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이처럼 보존에 유리한 기상환경이 형성된 원인으로 이 박사는 경관이 들어 있는 ‘틈새상자’의 특성에서 찾았다. 경관은 두 매씩 포개져 배열돼 있는데, 각 경관의 손잡이(마구리)와 이웃한 경관 사이에서 작은 틈새를 갖는 ‘상자’가 형성된다는 것.

위와 아래가 트여있는 틈새상자는 판전 내 대기의 대류를 원활하게 한다. 맑거나 건조한 날의 경우 틈새로 상승대류가 형성돼 경관

의 수분이 감소하고 틈새 습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기화과정에서 틈새 기온은 내려간다. 반면 습한 날은 습한 공기가 경관을 지나며 수증기를 빼앗기게 되고, 이 같은 액화과정에서 틈새 공기는 기온은 올라간다. 이 박사의 이 같은 설명은 온도와 습도, 상대습도를 측정할 결과와 일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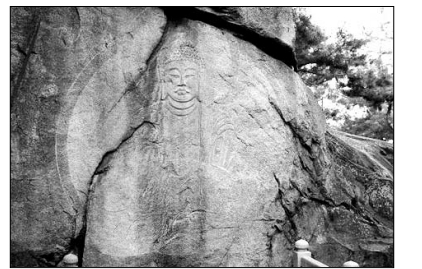
50여년의 연구 인생에 허두로 지내왔던 문화재보존의 지혜를 풀어내기에 100분이라는 강연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던지 이 박사는 문화재 보존철학을 피력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문화재란 조상의 얼과 교신할 수 있는 타임머신입니다. 보존·복원 작업은 언제나 가역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재의 최종 상속자가 아니라 과도적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박익순 기자

보문사 마애여래좌상 보물지정 추진

고산사 목조석가모니좌상 대전시 문화재 지정



대전시가 보물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보문사 마애여래좌상.

대전시는 3월 16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유형문화재 제19호 보문사 마애여래좌상의 국가문화재(보물) 지정 추진을 결정하고, 대전시 동구 석장산의 고산사 목조석가모니불좌상과 아미타불화화를 대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대전 유일의 마애불인 보문사 마애여래좌상은 광배(光背)와 불신(佛身)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고려전기 불상으로 큰 학술·공예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발바닥이 위로 향한 채 앉아 있는 좌상이며, 나발(부처의 머리칼) 위에 육계(부처 정수리의 혹)가 있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다. 높이 322cm, 무릎너비 230cm.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산사 목조석가모니불 좌상은 머리가 큰 듯하지만 안정감 있는 자세를 취한 17세기 불상이며, 아미타불화는 1815년 정안 스님에 의해 조성

된 것으로 조성연대와 조성 장소, 봉안처, 배경 등이 분명한 작품이다. 박익순 기자

* 기사남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유물진열 개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근무)은 1층 고고관 상설전시 작업의 일부를 3월 14일 공개하며, 용산 새 박물관에서의 유물 전시의 본격 개시를 알렸다.

이날 이뤄진 전시작업은 유물을 수장고에서 전시실로 옮겨 전시장에 진열하는 과

정으로서, 고고관에 전시될 2700여 점 가운데 금영총 출토 금관 1점(보물 338호)을 비롯한 44점의 작업이 공개됐다.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까지를 아우르게 될 고고관은 도입부·구석기·신석기·청동기·초기철기·원삼

국·고구려·백제·가야·신라·통일신라·발해의 11개실로 구성되며, 전시면적만도 약 1000평에 달한다.

박물관측은 “고고관 가전시를 6월 말까지 마치고 보완을 거쳐 전문가 및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연행사를 가진 뒤 9월 말까지 새로운 상설전시실을 꾸밀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저자특강/서광 스님 (미국 보스턴 서운사)

현대 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마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본질과 작용,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
마음을 정화시키는 구체적인 수행법...

일시__ 2005년 2월 24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장소__ 불광교육원 3층 대문당

정원__ 선착순 180명

접수__ 월간 불광, 불광출판사 (02-420-3200)

서광 스님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 월간 불광에 오랫동안 현대 심리학과 마음공부에 관련한 글을 연재하였으며, 불광출판사의 스테디셀러인 『그냥 바라만 볼 뿐이다』, 『불교상담심리학입문』, 『마음의 치료』,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 30송』, 『한영불교사전』 등을 펴냈다.

since 1974, 정통불교의 맥을 이어온 순수불교잡지 월간『불광』정기구독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기척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짜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기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짜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아영기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 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